

경남신문 > 경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6686억 들여 농업시설 정비

기사입력 : 2025-12-26 08:50:09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올 한 해 66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농지은행사업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기후변화 대응, 청년농 육성, 농촌 지역소멸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 사업을 진행했다.

공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개보수를 실시했다. 재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시설 보강을 집중 추진해 농업인의 영농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도 추진하며 농업용수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농지은행사업을 통해서는 은퇴·고령 농업인의 우량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67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66회, 수해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9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손영식 본부장은 “새해에도 농업·농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이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